

보드게임 속에서 인생 게임이 시작된다

‘미스터 모노레일’

김중혁 지음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감각을 갈고 다듬는다는 자칭 ‘독학소년’ 김중혁(40). 기발한 상상력과 능청스러운 유머를 장기로 한 시대를 표현하고 즐겨온 그가 또 한번의 게임관을 벌였다. 이번엔 주사위 놀이다.

지난해 등단 10년 만에 첫 장편 ‘썸비들’을 펴낸 그가 이번에는 주사위에 운명과 필연을 담은 보드 게임을 소재로 한 새 장편 ‘미스터 모노레일’을 썼다. ‘놀이’하듯 글을 쓰는 김중혁스러운 소설이다.

소설 속에서 스물 일곱 살 ‘모노’는 문득 ‘헬로, 모노레일’이라는 보드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주일 만에 게임을 개발해낸다. 그리고 수천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진 복잡하고도 흥미진진한 이 게임은 전 세계 사람을 휘어잡고 그와 동업자 친구 ‘고우창’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안겨준다.

한편 ‘모노레일’ 게임 마니아들인 모노와 그의 친구들은 고갑수를 구하기 위해, 혹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서로 다른 이유로 유럽 여러 도시를 헤맨다. 이들은 정체를 쉬 드러내지 않는 운명과 운명의 갈림길마다 어김없이 정해진 길이 아닌 낯선 선택을 하며 운명에 자신을 내던진다. 운명을 얘기하지만 자유로운 영혼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순간의 삶을 즐긴다.

“처음부터 자신의 선택이란 별로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 주사위를 던지고, 자신은 던져진 주사위의 숫자만큼 이동하는 말일지 모르다. 그리고 수천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진 복잡하고도 흥미진진한 이 게임은 전 세계 사람을 휘어잡고 그와 동업자 친구 ‘고우창’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안겨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창의 아버지가 자 평생 무위도식하던 지식 례인 ‘고갑수’가 회사 돈 5억 원을 들고 사라진다. 알고 보니 그는 ‘볼스 무브먼트’라는 동그란 구(球)로 우주를 관장하는 ‘우주자’의 힘을 믿는 사이버 종교의 핵심 간부 ‘핀볼 성자’였다. 그가 ‘볼교’의 본산인 벨기에로 떠난 것이다.

‘유니블 성자’를 납치한다. 우여곡절 끝에 고갑수는 순교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전작 ‘썸비들’에서 무거운 이야기기를 다뤄서인지 이번 작품은 작가 특유의 밝은 톤 분위기가 살아났다. 그의 아이디어와 재치들은 한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밤하늘의 별빛이 아니라, 오래도록 한 자리에서 빛나는 작은 보석처럼 소설 곳곳에 박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자들

빙긋 미소짓게 하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농담인 듯 아닌 듯, 진담인 듯 아닌 듯 우리가 잠시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진심’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놀이하듯 진심을 그리는 이번 소설은 그의 삶의 현장인 게임 속에 담은 우리네 인생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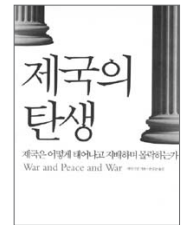


〈문학동네 제공〉

세계사 속 제국들의 탄생과 몰락

‘제국의 탄생’

피터 터친 지음



세기 아랍 사상이 이른 할둔이 제시한 개념인 ‘아사비야’, 즉 ‘사회 집단이 집단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사용해 설명한다.

로마인들이 공유했던 헌신, 믿음, 지조 등의 가치, 아랍인들을 통합했던 신성한 알라의 가르침, 러시아와 소수부족을 결속시킨 기독교적 이상 등이 모두 아사비야를 이끌어 냈다는 것.

저자는 더 나아가 제국의 흥망성쇠 원리가 오늘날 초국적 거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아사비야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제국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원제 ‘War and peace and war’

〈웅진지식하우스·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마제국, 몽골제국, 이슬람 제국 등 처음엔 작고 보잘 것 없었던 민족이 어떻게 막강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제국을 건설하지 못한 민족들과는 무엇이 다를까.

피터 터친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가 쓴 ‘제국의 탄생’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사 속에서 탄생했다.

다 몰락해간 여러 제국들의 역사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우선 제국을 ‘드넓은 영토에 다민족이 사는, 복잡한 권력 구조를 지닌 국가’라고 정의하고 여러 나라가 접하는 변경지역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충돌할 때 제국이 움튼다고 말한다.

이때 이 충돌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내적 결속을 이뤄 승리한 집단만이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14

베스트셀러부터 무명작가의 책까지...

‘식스센스 하우스’

폴 콜린스 지음



이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엄청난 책들로 뒤덮인 한책방에서 책들의 어두운 말년에 대해 생각하고, 책과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사색도 하게 된다.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 책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저자가 그의 첫 책 ‘밴버드의 어리석음’을 내면서 편집자와 메일을 통해 교정을 보고, 표지 문구와 마케팅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욕심각심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생생하다.

책 제목은 저자가 헤이온와이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했던 일명 ‘식스센스 하우스’(우리 돈으로 10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낡고 오래된 집)를 얻기 위한 해프닝에서 따왔다.

〈양철북·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네모난 듯’ ‘토머스 페인 유골 분실 사건’으로 잘 알려진 미국 작가 폴 콜린스의 ‘식스센스 하우스’가 번역·출간됐다.

책은 콜린스가 영국의 한책방을 ‘헤이온와이’의 설립자인 리처드 부스에게 발탁돼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을 담은 수기이자 책에 대한 단상을 쓴 ‘책 자체에 대한 책’이다.

저자는 미국 문학작품을 분류하는 일을 하면서 ‘톨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해러더 비처 스토와 ‘주홍글씨’를 집필한 다니엘 호손, ‘가지 않은 길’을 쓴 로버트 프로스트 등 베스트셀러에서부터 무명 작가의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인물)과 접한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

10년 만에 새 옷 입은 유쾌한 과학

‘과학 콘서트’

정재승 지음



어렵고 딱딱하다는 과학 서적의 패러다임을 바꾼 정재승 교수의 스테디셀러 ‘과학 콘서트’가 새 옷을 입고 독자와 만난다.

과학과 여러 학문의 융합으로 빛이 난 교향곡 같은 이 책은 그동안의 실험실에서 비밀 언어로 이야기하던 과학을 대중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콘서트 형식으로 쉽게 풀어냈다.

출간 10주년에 맞춰 선을 보인 개정판에서 저자는 그동안의 과학

변화, 특히 이 책의 주제인 ‘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세계 중의 하나인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데 과학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추가로 살펴봤다.

“포춘 쿠키와 현대과학의 로또 당첨 대결 실험”에서부터 ‘경영학과 네트워크 과학의 결합에 대한 성찰’까지를 살피는 10년 늦은 커튼콜은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어크로스·1만3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말러·클림트·프로이트의 흔적들

‘빈에서는 인생이...’

박종호 지음



‘내가 사랑한 클래식’의 저자 박종호가 수차례 찾았던 오스트리아 빈을 소개하는 예술기행서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를 펴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오페라 평론가, 클래식 음반 전문점 ‘풍월담’ 주인 박씨는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 말러, 클림트, 프로이트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을 찬찬히 둘러본다.

베토벤·슈베르트·모차르트·브람스의 묘가 자리잡은 중앙묘지, 세

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스트라인 빈 필하모닉 공연 현장, 에곤 실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레오폴트 박물관 등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 공간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수많은 책에 등장했던 카페 무지제움, 빈의 상징 중 하나로 꼽히는 카페 자허 등 빈을 찾는 이들이 꼭 들려야 할 카페와 건축물들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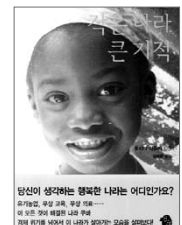
〈김영사·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쿠바’를 보다

‘작은 나라 큰 기적’

요시다 사юри 지음



카스트로의 독재가 먼저 떠오르는 쿠바. 언뜻 행복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쿠바 만의 유기농업 ‘오르가노포니코’가 주목받고 있고, 의료와 학교는 모두 무료다.

일본인 저널리스트인 요시다 사юри가 쓴 ‘작은 나라 큰 기적’은 쿠바인들과 생활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사진전에서도 우연히 쿠바 사람들의 밝은 웃음이 담긴 사진을 보고 쿠바를 방문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쿠바 사람들의 원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책은 쿠바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쿠바인들의 소박한

삶, 쿠바의 문화와 교육, 선진적인 의료 체계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단순히 쿠바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하기에 나타나는 변화들과 사랑, 관, 인생관 등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 만이 알 수 있는 자세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최근 나타난 쿠바의 새로운 움직임까지 골고루 보여 준다.

저자는 “쿠바를 아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세계를 아는 것이며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과도 관련된다”며 “내가 쿠바에서 얻은 것, 그것은 삶의 지혜이며 풍요의 진해 의미”라고 말한다.

〈김동소·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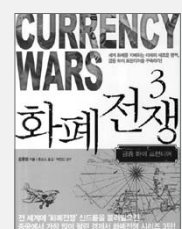
신간

▲누가 말했는 죽였는가=2002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고 등단한 안성호(43)씨의 새 소설집. 길에서 우연히 어깨를 부딪친 뒤 상대 남자를 찾다가 죽음을 이룬 ‘말레’의 이야기를 담은 표제작 ‘누가 말했는 죽였는가’ 등 9편의 짧은 소설을 수록했다. 〈문학동네·1만원〉

▲나는 당신을 만나기전부터 사랑했습니다=가톨릭 언론에 몸담고 있는 우공호씨가 쓴 ‘울지 마 톰즈’의 주인공 이태서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 이태서 신부의 친구와 지인, 성직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삶이 지닌 의미를 추적했다. 아름다운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진리가 담겨있다. 〈여백·1만2000원〉

▲손가락 없는 환상곡=1994년 ‘돌의 내력’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일본 작가 오쿠이즈미 히카루의 음악 소설. 슈만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그의 음악을 기본틀로 삼고, 여기에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아름다운 문장을 빚어냈다. 슈만은 치명적인 손가락 부상으로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이 끝난 뒤 오히려 걸작 피아노곡을 창작해냈다. 〈시공사·1만2500원〉

▲황제의 특사 이준=대한제국 1세대 검사이자 고종 황제의 특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됐다. 순국한 이준 열사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 임무영(서울고검 검사)·한영희씨 부부가 방대한 사료와 현지답사에 근거해 이준 열사의 ‘1세대 검사’로서의 행적과 헤이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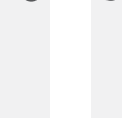


에 특과파 순국하기까지 일대기를 검사의 길, 법치의 길, 구국의 길 총 3장으로 나눠 생생하게 그렸다. 〈문이당·1만3000원〉

▲화폐전쟁 3=송홍빈 중국 글로벌경제연구원 원장의 ‘화폐전쟁’ 시리즈 세 번째 권. 이번에는 100년간의 아시아 지역 화폐 변화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살펴본다. 저자는 주권국가의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 등 물리적 공간 외에 금융이 추가돼야 한다는 ‘금융 하이 프런티어’ 개념을 제시하며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한다. 〈랜덤하우스·2만5000원〉

▲클래식 사용설명서-이럴 땐 이런 클래식=피곤할 때, 숙면이 필요할 때 기분과 상황에 따라 듣는 맞춤형 클래식에 대한 해설서다. 클래식 음반과 관련한 서적들을 수집·연구하고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감동과 행복한 경험을 풀어, 때와 장소에 맞는 클래식 음악을 권한다. 〈부키·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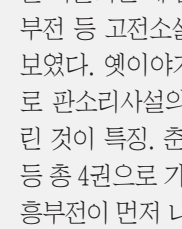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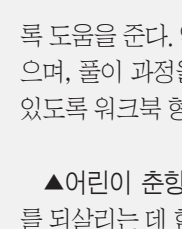
▲어글루나 강의 오른쪽=무선 문학상을 3차례나 수상한 조쥘의 제7회 마오둔 문학상 수상작. 중국 변방지역 소수 민족의 삶을 조명해 온 작가가 내용도 소수민족인 어원커 부족이 온갖 고고를 헤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두 나라의 경계까지 쫓겨간 어원커 부족은 전염병에 살인적인 추위로 큰 고난을 맞는다. 이 부족 마지막 추장의 여인을 통해 그들의 삶과 문명세계의 병폐를 짚어본다. 〈들녘·1만4800원〉



▲우리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11가지 조선왕릉 이야기=조선의 건국과 멸망에 이르기까지 500년 역사를 왕릉에 숨겨진 일화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 성종, 왕의 자격이 없다 하여 능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연산군, 왕위에서 쫓겨난 뒤에 서인으로 강등된 광해군 등 안타까운 사연도 담았다. 〈사계절·8000원〉

▲파도타는 자전거=한국어동문학상, 소월문학상 등을 수상한 한명순씨의 여섯 번째 동시집. 아이들의 삶터인 가정과 학교 등에서 겪는 일상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본 시선과 그들의 속마음과 고민까지 풀어내는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특히 아빠와 엄마, 할머니 등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사랑이 담긴 작품들이 많이 실렸다. 〈섬아이·8500원〉

▲소금꽃이 피었어요=맑고 깨끗한 천일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요리에 필수적인 소금에 대해 설명한 그림책. 소금이 만들어진 염전의 사계절을 다뤄민터처럼 꼼꼼하게 그



렸다. 띄어쓰기 아래 소금을 만드는 사람의 땀방울은 물론이고 눈 덮인 소금밭의 서정적인 모습도 담았다. 〈보림·1만8000원〉

▲잠신이 말리지는 인도 수학=대한 수학의 하나로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도수학의 ‘초스피드 계산법’을 소개했다. 수학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칙연산을 암산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암산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의 연습문제를 수록했다. 〈비이킹·8900원〉

▲어린이 충항전=교사로 일하며 옛이야기를 되살리는 데 힘써 온 서정오씨가 충항전, 흥부전 등 고전소설을 판소리 소설로 새롭게 선보였다.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구수한 입담으로 판소리사설의 멋있는 가락과 운율을 살린 것이 특징. 충항전,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등 총 4권으로 기획 되었으며 이번에 충항전과 흥부전이 먼저 나왔다. 〈현암사·각 권 9800원〉